

지상 범석

“마음열어 풀어 놓는 그곳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

爲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②

後學 未聞旨趣 應須轉問先知  
후학 미문지취 응수박문선지

將謂出家 貴求衣食  
장위출가 귀구의식

佛先制律 創製戒條 制則威儀 淨如冰雪  
불선제율 개창발공 궤칙위의 정여빙설

止持作已 束斂初心 微細條章 革諸惡習  
지지작이 동수초심 미세조장 혁제외폐

毘尼法席 曾未切路 了義上乘 豈能離別  
비니법석 증미도배 요의상승 기능견별

비니법석 증미도배 요의상승 기능견별

후학들이 도에 나아갈 뜻을 듣지 못하여 모름  
지기 앞서 배운 이에게 널리 풀어 마땅하거늘  
(그때마다) 출가가 어찌 옷·밥 구하기를 귀  
히 여기랴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먼저 계율을 제정하사 몸매함을  
일깨워주는 궤범과 위의를 깨닫히기 미치지  
않았으니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계율을 바르게  
지니 행함으로써(止持作已) 발심수행의 초심을  
거뒤잡고,  
저쪽쪽목 미세한 부분까지 모든 난잡한 폐습  
을 고치셨던  
설법의 지리(비니법석:계율을 실천 법석)에

“뉘는것 없음에도

‘나로 소이다’ 마음만 높아져

좋은 도반과 친하려 하지 않느냐”

서 외람스럽게도 일찍이(부처님을) 모시지 못  
했으니  
(그대들이) 진실하여 위없는 법문을 어찌 능  
히 남게 거러 내겠는가.

可惜 一生空過 後悔難追  
가서 일생공과 후회난추  
教理 未嘗措懷 玄道 無因契悟  
교리 미상조회 현도 무인계오  
及至年高 空腹高心 不肯親隨 良朋  
급지년고랍장 공복고심 불금친부량봉  
惟如磨滅 未語法律 敬全無  
유지거오 미입법률 경중전무  
或大語高聲 出言無度 不敬上下 座  
혹대어고성 출언무도 불경상중하와  
婆羅門 聚會 無殊  
바라문회회 무수

애석하다.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고나면 후  
회한들(가르침을) 좇기 어렵게 된다.

진실한 가르침에 일찍이 마음을 내지 못했으  
니 불도를 좇아 자성에 결합하여 깨달을 인연  
이 없었다.

급기야는 나이먹어 법랍만 많아져서는 뉘는  
것 없음(空腹)에도 ‘나로 소이다’ 하는 마음만  
높아져(高心) 좋은 도반과 가까이 친하려 하지  
않으며

오로지 거만하게 남을 업신여길 줄만 아니  
법문과 계율의 참뜻 깨우치지 못해 안으로 마  
음모아 관한 줄 모르는 도다.

혹은 큰소리 높은 음성으로 떠  
드나 말 가운데 법도가 없고 하심  
할 줄도 공경할 줄도 모르나니  
(저 아상한 높은) 바라문들이 모인 것과 다  
르지 않다.

愧謙作聲 食畢先起 去就乖角 僧體全無  
완발자성 식필선기 거취괴각 승체전무  
起坐依諸 動他心念  
기좌종제 동타심념  
不存些些 制則 小威儀 將何來效  
부존사사궤칙 소소위의 장하속렴  
後昆新學 無因做效  
후곤신학 무인방효

(또한) 발우공양 중에는 소리내고 끝마치면  
먼저 일어나 나가는 등 행주좌와 중에 도무지  
법도가 어긋나기만 하여 중 다른 모습이 전혀  
없다.

(참선할 때 조차도) 앉고 일어섬에 모두를  
놀라게 하여 다른이의 마음까지 동요케 하니  
이렇듯 사소한 궤범이나 위외조차 갖추지 못  
함에 점차 무엇으로써 마음을 거뒤 잡을 것인  
가.

뒤에 새로 배우려는 이들이 인하여 본받을  
것 없다.

緣相覺察 便言我這山僧  
재상각찰 변언이산승  
未聞佛敎 持一向 情存龜龜  
미문불교행지 일향 정존구구  
如斯之見 蓋爲初心 慚情  
여사지견 개위초심 용타  
慕善因循 任得人間 遂成疎野  
모상인순 임염인간 수성소야  
不覺 難離老朽 萬事唯隨  
불각 용중노후 옥사만장  
後學空詢 無言接引 縱有談說 不勝典章  
후학자순 무언접인 증유담설 부십전장

겨우 형상을 살펴 안다 하여서는 ‘나야말로  
산승이로다’ 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닦는 도리  
가 무언지 듣지도 못하고 한가지로(한결같이)  
조잡한 것에만 뜻을 두고 있음이로다.

이같은 소견은 모두 다 처음 먹은 마음이 게  
우려서

도철(먹고놀기만 좋아하는 짐승)같이 먹고  
놀기만 즐기며 그러저러 인생을 보내 드디어는  
(말이) 성글고(행풍이) 거칠게 된 것이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길기도 전에 늙은 것이  
니(일을 마치기는 커녕) 더는 나아갈 곳이 없  
이 답장에 코를 박은 꼴이로다.

(그러한 지경이니)후학이 물어오면 말 않는  
것으로 접인하고 비록 설법입내 한대해도 경전  
의 내용과는 관계된 말이 못된다.

龍眼

부처님의 귀한 진리를 어찌 먼 곳에  
서 찾을 것인가. 꽃마다 풀마다 그  
이치가 다 드러나 있는데 어찌 별도로  
찾을게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익혀온 10가지 악행과 악  
업 때문에 업장(業障)이 가려 자신에  
게 있는 경(經)을 볼 줄 모릅니다. 사  
람마다 무진 한량없는 보배가 자기  
자신에게 있건만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부처님이 옷자락을 걸어 올리며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  
의 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남의 경만  
을 읽으려 합니다.

우리 중생은 자성(自性) 자리가 자  
신에게 있건만 찾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람마다 좋은 보배구슬이 있건만 찾  
지 못하는 까닭에 부처님이 현물을 걸  
어부쳐 보배구슬을 찾으셨습니.

자기속에 있는 보배

부처님은 허무한 이상(理想)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 사는 이치  
를 들어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법은 한량없는 중생이 닦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사람  
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은  
무량겁 동안 생사를 거듭하며 지은 업  
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지은 업을 자신이 닦아낸다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닦아서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닌 한량없는 보배를 찾  
아 지니면 세상 영겁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  
고 설명해 주는 것이 <금강반야바라밀  
경>이요 <법화경>이요 <반야경>인 것  
입니다.

육도(六道) 윤회에서 벗어나기란 참  
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  
국 무(無)로 돌아갈 몸통아리를 지닌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살아서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바다같이 쓰면서 폭넓게 살아  
가야 합니다. 이게 불법(佛法)을 믿었  
다는 표적입니다. 길이 좁은 골목에서  
는 오도기도 못하고 골짜기 못하는 겁니  
다. 불교는 넓은 대로(大路)라서 누구  
든지 여유있게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걸어  
서 가거나 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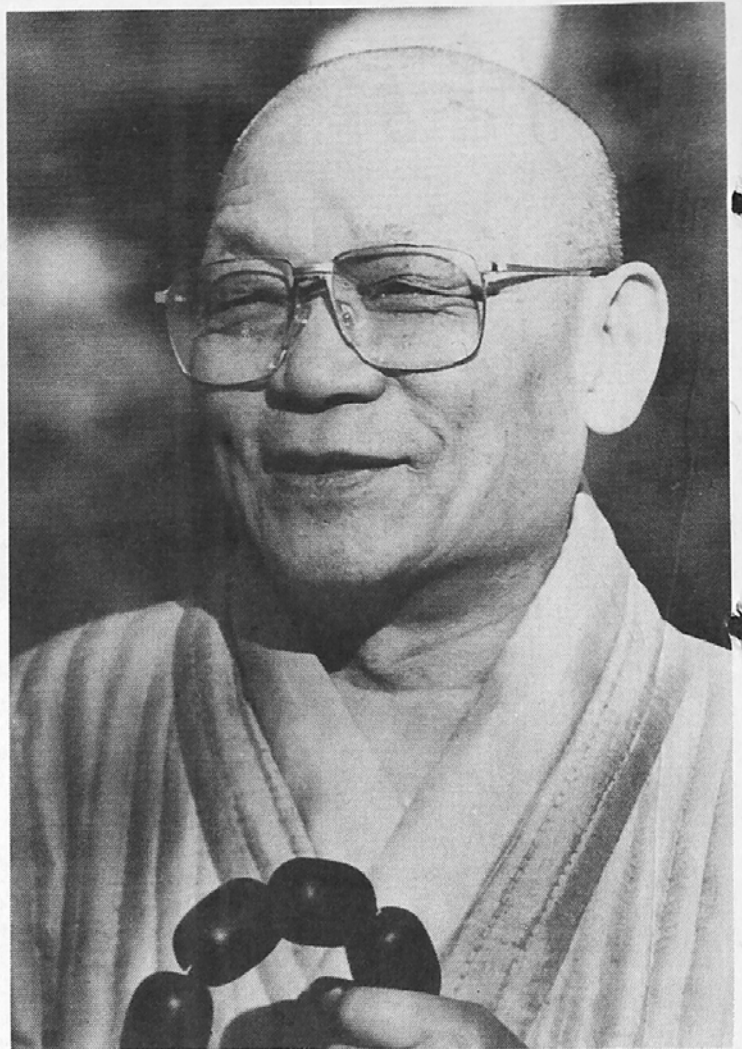
불법은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모든  
길 놓고 용서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  
다. 빌딩, 땅, 보물 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싹싹하게 남주고 갈 것이니 받  
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기에 구지 집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고(苦)가 많습니다.  
애착이 많으면 슬픔이 많습니다. 하지

화산 스님 <대구보광원 조실>

약 력

△1919년 양산 생  
△1936년 통초스님 은사로  
득도  
△성군관대 철학과 졸업  
△통도사 전문강원 대교  
과 졸업  
△금강산 마하연, 오대산  
상원사 동서 안거  
△통도사 김주 지법  
△현재 양산 천물사, 일양  
표창사 조실



만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기  
에 막순환을 되풀이 합니다. 사람의  
정념(情念)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아  
무리 영을 호결이라도 애정에 사로잡  
혀 울다 갑니다. 항상 마음이 부글부  
글 끓어 번뇌 망상이 끊임 없이  
환상 심란하게 생활합니다. 다 풀어놓  
고 마음 조질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렇지 않고는 모든 걸 잃습니다.  
우선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  
들과 서로 마음을 맞춰가다 보면 불교  
적인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은연중에

심천이 됩니다. 특특하고 훌륭한 짐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과 목재로 서로 잘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이 내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내  
가 먼저 남의 마음을 헤아려 맞춰나가  
십시오. 자꾸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꿈

물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연법으로 얽힌 인연세상이라  
더욱 뜻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법  
문을 듣거나 경을 읽으면 전생에 지은  
빚을 갚기 한결 수월해 지겠지요.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업보의 빚을  
갚으면서도 무상(無常)을 느낄 줄 알아  
야 합니다. 탐·진·치(貪·瞋·癡) 삼  
독(三毒)과 망념(妄念)이 없는 그곳에  
서 진심이 우러나고, 진심을 견지해야

무상을 관(觀)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는 이세상 으르렁거리  
고 원수질 게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을  
열고 풀어놓는 그곳에 남과 내가 하나  
되는 마당이 열립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苦)’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  
게 됩니다. 줄어 왔다 줄어 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깊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별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을 붙일 때도  
울고 정을 뱉 때도 우는 게 사람이입  
니다. 이 세상이 잠깐 쉬었다 가는 꿈  
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이 육신은 고  
를·피 덩어리입니다. 공덕을 지으면  
오히려 빨리 육신을 벗는 도리가 있  
습니다.  
모두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남·녀  
가 주례 앞에서 ‘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지만, 거짓 맹세가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제13기 학인모집요강

불교전통의식으로는 불교음악으로서의 범패와 승  
무(바라춤, 착복무)를 볼 수 있다.  
범패란 전통불교음악을 지칭한 말로서 그 기원은  
인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범패음악의 현  
실은 어떠한가? 오늘날의 한국 寺院은 영산회상의  
환희심을 잃은 지 오래이며, 몇몇 특수사찰과 교육  
원에서 그 명맥만이 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梵唄  
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이 실추되어

있는 바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유  
산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잘 전승해 주었을 때 그  
종교적 문화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이  
에 본 교육원에서는 사라져가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  
다 높이고 계승·발전시키고자 제13기 전통의식, 교  
육생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바 전통의식에 관심이 있으  
신 스님 및 신도님께서는 방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원장 승掌

교육과정

- 기초과정: 사찰(사중)생활에 필요한 기본의식 및 예  
불·불공
- 기본과정: 천도의식 49제의식 범패·범음 등 제반의식
- 요점과정: 바라춤, 착복(나비춤) 태정치는 법 등
- 강 사: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  
임명수 원장 직강
- 교육기간: 기초과정 3개월 기본과정 6개월  
요점, 바라 3개월  
기초과정-오후 4시 ~ 5시 30분  
기본반-오후 6시 ~ 8시
- 교육시간: 주 4회(월 ~ 금요일)
- 접수일자: 1995년 2월 15일 ~ 3월 14일  
\*(AM 10:00 ~ 20:00) 상담자 대기

- 개 강: 3월 16일
- 자 격: 종단에 구애 없이 전통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 및 사찰관  
리자, 신도 모두 환영합니다.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육원 발행), 사진 3매(반명함)
- 문의전화: (02)967-7093



130-014 서울시 송도동 청량리 2동 604번지  
청량리 전화국 건너편 3층 ☎ 967-7093

상담자 대기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정신·육체를 위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  
지고 인간이라는 글씨의 속성이 근원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재산계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생수,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염분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  
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는 범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응림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을 보셨거나 거처를 알고 계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사람이 확인되면 후사하겠습니다.



사례금: 오백만원 정

- 성 명: 이용희
- 주민등록번호: 521115-1154923
- 생년월일: 52년 12월 15일

인상착의: 나이보다 어려보이며 키는 165cm  
몸매: 가냘픈편  
실종일: 87년 7월  
정신건강: 이상없음  
학력: 성균관대학원  
찾는사람: 이용희의 어머니

연락처: (032)522-0432  
전화담당: 박삼수

사원모집

“함께할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 남자: 운전경험 유한자  
지역: 군필·면제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불교인으로 자부하는 자  
보수: 월 80만원 모집인원: 1명
- 여자: PC과정을 수료한 자  
모집인원: 1명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문의처: 가람기획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40 청송빌딩 2층  
전화: 720-5121, 720-2874 / 팩스: 732-3769